

##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기업 조사서

군산도시가스(주)는 지역 사회의 에너지 복지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군산의 대표적인 공공형 민간 기업이다. 설립자 김동수 회장은 제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봉옥 의원의 장남으로, 군산초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자 했다.

그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군산의 미래를 밝힌다”는 신념으로 1990년 1월 6일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6일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취득하였다. 이후 과감한 기반 시설 투자와 꾸준한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군산도시가스의 본격적인 사업은 1991년 8월 6일 군산시 지역에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군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어 2000년 12월 8일, 공급 방식을 천연가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2003년 12월 1일에는 CNG(압축 천연가스) 충전 사업을 개시하여 시내버스 13대에 대해 충전을 시작, 이후 꾸준히 확대하여 2009년까지 총 110대 전 차량을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 전국 최초로 100%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을 실현했다. 이는 군산이 ‘청정 교통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성과였다.



군산도시가스는 공급권역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1991년 군산시를 시작으로 2011년 임실군, 2012년 부안군, 2018년 진안군으로 공급 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판매량은 2008년 1억㎥, 2010년 2억㎥, 2012년 3억㎥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한 2017년 새만금 지구정압기, 2022년 동부 지구정압기를 준공하여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신규 주거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형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는 품질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주력해왔다. 2004년 5월 3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4년 4월 15일 ISO 45001(구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혁신’, ‘존중’, ‘소통’ 등을 주제로 한 전사적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성장의 길에는 시련도 있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산하며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 경제 위기가 닥쳤다. 얹친 데 얹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발생하면서 군산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이 시기 군산도시가스 임직원들은 지역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조선소 가동 중단 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서울 상경 집회 등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뜻을 모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배관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군산 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넘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RE100 시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도시가스는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기 전까지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회사는 수소에너지와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공급하는 군산도시가스”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관리 문화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모든 직원이 심폐소생술(CPR)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매년 겨울철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회사는 IT 인프라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2023년 2월 9일 ‘가스앱’ 출시를 통해 고객 민원과 요금 조회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하고, 2023년 6월 9일 통합 ERP 시스템, 2024년 8월 29일 GIS 웹·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2025년 10월 2일 원격지 백업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무결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새로운 경영 목표를 반영한다. 군산도시가스는 앞으로도 전통적 안전관리뿐 아니라, 정보 보안과 데이터 안전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의 군산도시가스는 단순히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안전과 신뢰를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뿌리는 군산 시민과 함께한 지난 30여 년의 역사 속에 있으며, 그 미래는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